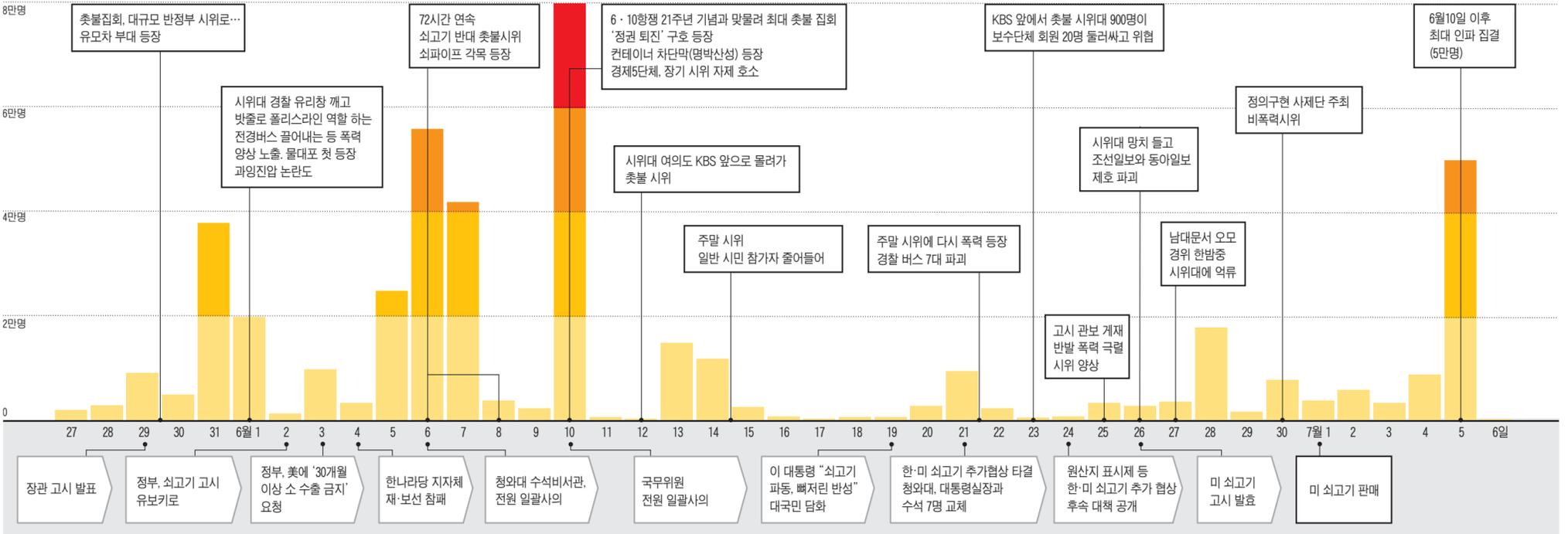


# 방송·인터넷·한겨레·경향, '광우병 위험' 과장하고 시위 부추겨



**인터넷**

5.27 네티즌,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요 3대 신문의 광고주 협박 운동 시작  
 5.28 시위대에 손을 물린 여경이 손 뺀다는 장면을 좌파 인터넷 매체가 '경찰이 시위대의 머리를 잡아챌다'고 보도  
 5.31 다음에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

6.1 촛불집회 도중 전·의경의 서울대 여학생 군항복 폭행 동영상 확산, 한나라당 홈페이지 해킹  
 6.2 서울경찰청 제 1기동대 흉포 해킹, 이고라에 '여학생 사망설' 게재·확산 (이후 게시자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6.3 촛불집회 반대하는 네티즌 모임인 '노노데모' 개설됨

6.4 시위진압 전·의경 상대 '사이버 사냥' 주소·연락처 등 신원유포... "숨어살아라" 목설 퍼부어  
 6.5 농심, 광고주 중단 전화에 "광고주 불매는 잘못된 일" 해명했다가 집중 공격 대상 부각  
 6.9 민연련, 주요 3대 신문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인 '리얼조중동' 개설

6.12 본지, 광고주 협박 주도 사이트에 '사이버테러 게시물 삭제 요청 공문' 발송  
 6.19 조선닷컴, 'PD수첩' 오역 가능성 최초 문제제기

6.27 본지, '네티즌 여러분께 드리는 글' 주요 사이트에 게재 - 사실 아닌 루머와 음해·비방에 대해 설명  
 7.1 방송통신심의위 "포털은 광고주단 협박용 광고주 리스트 삭제해야" 결정  
 7.4 포털사이트 다음, 7일부터 모든 게시물 IP주소 공개 결정

**KBS·MBC**

5.27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방송  
 6.3 시사기획팀 '떠난 민심은 되돌아올까?'  
 6.11 KBS PD협회, 한겨레신문 등에 '촛불이 공영방송 KBS를 지켜줄 것' 광고 게재 - 친(親) 정연주 성향인 PD협회의 광고 후 다음 등에는 'KBS를 정부로부

터 지키자'는 글이 올라오고 KBS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기 시작. 이 광고 건으로 PD협회 탈퇴 운동도 시작.  
 6.12 100분 토론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 - 100분 토론 과정에서 고려대에 재학 중인 김모씨가 '고대녀'로 떠올랐으나, 이후 2006년 고대 교수 갑급 사건으로 출교 조치를 당했다 복교했고 민주노동당원이라 사실이 알려짐  
 6.14 보수단체 'KBS·MBC 광우병 선동' 촛불시위대 "KBS·MBC 시수하자" 충돌  
 6.20 농림수산식품부,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6.24 PD수첩 '쇠고기 추가협상과 PD수첩 오보논란의 진실' 편 방송

6.25 PD수첩 변역자 금지민씨, PD수첩의 의도적 오역 문제 제기 - "변역 및 검수 과정에서 동물 보호 단체가 찍은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우려 소'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제작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1 시사기획팀 '촛불 대한민국을 태우다' - 촛불집회를 1987년의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연결 짓는 내용

**한겨레·경향**

5.27 한겨레 '달리진 촛불 집회' 10대 빈자리에 20~40대, 구호도 쇠고기에 정적전반으로  
 5.29 한겨레 '아고라'는 제2명동 성당... 돌 대신 댓글 던져  
 5.31 경향 6월 한창이 다시 '촛불'로 "반독재 구호서 국민건강 사수로 '그날' 재현

6.3 한겨레 경찰 경정진압 위험 수위 새벽 방파로 찍어 이빨 '우두둑' 21살 여대생 머리카락 잡고 군항복, 인체 치명적 할론 소화기 분사  
 6.7 경향 수만의 외침, 유쾌한 저항 토론회·공연...김밥 나눠먹고... 밤새 얘기꽃

6.9 한겨레 촛불 명분은 비폭력, 정 새벽 밤파로 찍어 이빨/목설 소화기 곤봉... 시위 격화 유도하나  
 6.10 한겨레 "먹통 정부가 촛불 키워 대통령 국민소환제 필요" 저항의 광장 '촛불이 들불로'... "한일어 같은 희생자 또 나올까 겁난다"(이한열씨 어머니)

6.10 경향 6월한정 주역 동참 "그날의 정신 되살리자"  
 6.11 경향 21년 만의 함성, 제2의 민주화 '6·10 백만 대행진' 전국 촛불의 물결

6.27 한겨레 시민-경찰 심야 투석전... 무더기 연행사태  
 6.30 한겨레 사설 "착각한 총만 없을 뿐 1980년 5·18 광주 모습 그대로"

7.2 경향 "광고주 명단-전화번호 적시 불매운동은 위법" 방통위, 네티즌에 '즉쇄'

**조선일보**

5.27 '5·17 휴교' 문자 재수생이 시작, 30분만에 퍼졌다.  
 5.30 최보식 사회부장이 본 촛불시위 현장.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순정'으로 나왔고...

6.2 시위대, 연일 청와대 진입 시도 밤마다 서울 도심 마비...폭력시위·강경진압 충돌  
 6.2 성난 시위대...성난 경찰, 주말 대충돌...물대포·경찰 특공대 동원해 진입  
 6.3 너무 가까워서 썼나? '물대포 진압' 논란...시위대 "경찰청 훈령 어겨" 경찰 "가장 안전한 장비...부상 당할 정도 아니다"

6.7 최대 규모 촛불시위... '쇠고기 반대'서 '정권 퇴진' 요구로 확산  
 6.11 6·10한정 21년후... '촛불'로 뒤덮인 대한민국 심장부 '탄핵' 이후 최대...밤 되자 '청와대로'  
 6.12 "촛불집회는 위대하지만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소설가 이문열씨, 우회적으로 비판

6.16 시민 참여 줄어든 '휴일 촛불집회'...서울광장 집회에 합류, 총 2800명 모여  
 6.17 '고(故) 아레사 빈슨씨 사인, 인터넷 광우병 아니다' 확인 보도  
 6.19 경제 5단체, 포털 등에 공문... "기업의 광고 활동 방해 말아야"

6.20 "촛불행렬 보며 빠져린 반성", 이 대통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금지 협상중"  
 6.20 여형업계, 광고협박 수사요청 "조·중·동에 광고 낸다고 업무 마비 시켜"  
 6.20 "라면에 비취벌레...식약청 조사 착수, "신라면 풀이다가 발견" 소비자 신고, 농심측 "포장지에 붙어 있던 것 같다"  
 6.24 "광고중단 압박, 조직적·악의적", 검찰 "사법처리"...경찰 "촛불주동 10명 체포영장 검토"  
 6.24 데일리서프라이즈, 영터리 '라면' 기사로 本紙 비방...本紙, 민·형사 책임 묻기로

6.26 공동변역자 금지민씨,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위험 여러 번 지적  
 6.27 청와대만 지키는 정권 광화문은 한달 넘게 밤마다 무법천지... '폭력의 해방구'  
 6.27 극소수가 토론 지배하는 다음 '아고라' 10명이 2만1810건 글 올려  
 6.28 "한밤 시위대 신문사 공격 민주사회에 혼란 불러" IPI, 대 대통령에 서한

7.1 촛불시위 주도·체포영장 발부된 인물들은 국보법 위반...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FTA 시위 주동 경력자들

## 촛불에 기름 부은 'PD수첩' 의도적 오역·과장 의혹

4월 29일 MBC의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편이 방송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촛불집회가 온 나라를 뒤덮어 놓을 줄 알지 못했습니다.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4월 26일 '이명박 탄핵 범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열렸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신지식 코너에는 "왜 광우병 논란이 이슈화 안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논란이면 벌써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PD수첩 방송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5월2일 첫 촛불 문화제는 참가 예상인원이 300명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1만 명이 모여 주최 측을 놀라게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은 PD수첩 방송 후 다섯만인 5월 4일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우너(주저앉는 소)와 고(故) 아레사 빈슨씨의 죽음 등 학생의 마음까지 흔들여 놓았습니다. '미친 소, 너나 먹어'라는 포켓을 든 청소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PD수첩'은 의도적 오역과 과장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레사 빈슨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분석하기 위한 MRI결과 CJD(크로이츠펔트 야콥병)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CJD(인간 광우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로 바꿔 놓았습니다. 온 국민의 뇌리에 깊이 박힌 '주저앉는 소' (다우너 카우)도 광우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광우병도 다우너 증상의 원인일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 주저앉는 증세를 보이는 소도 많다고 합니다. 변역자 정지민(여·26)씨에 따르면, "불법 도축되는 주저앉는 소들과 광우병을 직접 연결시켜선 안 된다"고 몇 차례나 이야기했지만, PD수첩 제작진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PD수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과연 PD수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신동훈 기자 dshin@chosun.com

## "광고 중단한 삼양식품만 비판" 헛소문 경향닷컴 '시민 손가락 절단' 오보 판명

이번 촛불 정국에서는 각종 매체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부분별하게 기사화하며 대중을 적당시키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6월 초 조선일보에 '농심 정이리 펠타이드'라는 건강식품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광고는 판매대행사가 게재한 것인데도 네티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항의전화 공세를 벌였습니다. 농심의 한 담당원은 "시청률이 높은 방송에 광고를 하거나 구독률이 높은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더욱 성이 난 일부 네티즌들은 그때부터 '농심 불매, 삼양라면 구매' 운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그 즈음 공교롭게도 삼양라면에서 이물질인 너트(나트)가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농심 음모설'을 퍼뜨리며 '삼양라면 너트는 철분 보충용으로 건져먹겠다'는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조선일보가 삼양식품의 식품 위생 불감증을 지적하는 심층 기사를 쓰자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광고를 하는 농심은 봐주고, 광고를 중단한 삼양만 비판했다"는 헛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농심과 삼양 모두 원래부터 신문에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진노(震怒)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네티즌들의 '설(說)'을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경향신문의 인터넷 매체인 '경향닷컴'이 지난 달 26일 게재한 '시민 손가락 절단...경찰 재차 무력 진압' 기사도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경향닷컴은 지난 달 26일 새벽 청계광장 부근에서 벌어진 시위 상황에 대해 "이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찍혀 손가락이 잘렸던 20대로 보이는 여성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져 시위하던 시민들이 잘린 손가락을 찾아 병원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6일 새벽부터 "그런 여성은 들어 온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밝혔지만 경향닷컴은 "20대 여성 손가락 절단 기사"를 26일 오후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주요 기사로 게재했다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